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추가 촉구

최훈식 장수군수, "정책적 준비와 지역 여건 충분히 갖춘 최적의 시범지"

장수군이 농립축산식품부의 '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국 공모에서 최 종 탈락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 하며 추가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다.

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군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"장수군은 이미 정책적 준비와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최적 의 시범지가 분명하다"며 "1차 대상지 로 선정됐으나 20일 발표된 최종 결과 에서 7개 군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못 했다"며 유감을 표했다.

이어 최 군수는 "이번 결과는 농어 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군민들의 기 대가 컸던만큼 아쉬움도 크다"며 "장 수군을 포함해 1차 심사를 통과하 12 개 시 · 군은 기본소득 사업 추진과 관 련해 이미 충분한 역량을 인정받은 만 큼 형평성 있는 추가 지정이 필요하 다"고 피력했다.

'농어촌 기본소득 사업'은 현 정부 의 공약시업으로 농어촌 지역의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 화하기 위한 제도다.

인구감소지역 6개 군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씩 정기적으로 2026년부터 2년 간 지급하는 사업이다.

농립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1차 선정지 12개 시군 중 최종 6개군 을 선정할 예정이었다.

장수군은 도내에서 순창군, 진안군과 함께 1차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20일 발표된 최종 결과에서는 7개군으로 대 상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



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24일 군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의 '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'전국 공모에서 최종 탈락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 명하며 추가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다.

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.

장수군은 그동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행정적・제도 적 준비를 다계적으로 추진해왔다.

2022년부터 기본소득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며 조례 제정, 추진단 구성, 군 의회 동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,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'기본소득 분과' 운영과 주민설명회·서명운동 등을 통해 군민 참여 기반을 강화했다.

특히 군은 해발 400m 청정 고원지대

로, 대규모 산업개발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공동체 중심의 경제 구 조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. 지역화폐 가맹률은 91.9%로 전국 최 고 수준이며, '주민참여형 소비처 발 굴', '행복나눔터 로컬푸드 직매장', '이동 행복마켓' 등 소비 인프라를 통 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연계한 순

환경제 모델 실현할 준비를 해왔다. 최 군수는 "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 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, 농촌의 지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를 만드는 국가 전략"이라며 "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일회성 사업에 머물 지 않도록 지역 간 형평성과 정책 다 양성을 고려한 추가 지정과 예산 확대 를 검토해야 한다"고 거듭 강조했다.

이어 그는 "장수군은 이미 준비되 지역으로, 향후 정부의 추가 지정 논 의가 있을 경우 선도적으로 참여해 성 공적인 모델을 만들어갈 것"이라며 "농촌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인 만 큼 중앙정부, 전북도와 지속적으로 협 의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농촌경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"고 /장수=고판호 기자 덧붙였다.

무주군청년정책협의체가 주관하는 '2025 무주군 청년 페스티벌'이 무주군 상상반디 숲 광장 일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.

"무주 청년, 희망을 그리다"

무주군 청년 페스티벌 개최

'2025 무주군 청년 페스티벌(주관 무 주군청년정책협의체)'이 무주군 상상 반디숲 광장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

'무주 청년, 희망을 그리다'라는 주 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지역 청년들에 게 끼와 열정을 발산하는 기회를 제공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, 황인 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 장을 비롯한 무주군 청년 1백여 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.

행시는 셋두리 밴드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, '군수와의 공감 토크', 레크리 에이션 등이 진행됐으며, 상시 프로그 램으로는 '청년 열정 불빛 체험(무드 등 만들기), '청년의 향기(디퓨저 만 들기), '청년 열정을 쏴라(다트 던지 기) 등이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.

특히 '군수와의 공감 토크' 시간에

는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군정 발 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지며 열기를 더했다.

청년들은 △주거비 부담, △무주형 일자리 부족, △일과 후 즐길 수 있는 청년 전용 문화・휴식 공간 부족, △ 청춘 남녀 만남의 기회 부족 등 평소 생각을 가감 없이 나누며 공감대를 쌓

황인홍 군수는 "우리 지역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어 기쁘다"라며 "군에서는 '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 업'과 '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 업'이 무주 정착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주력할 것"이라고 밝혔다.

군은 이번 청년 페스티벌에서 논의 된 다양한 제안을 바탕으로 청년 정책 을 구체화할 방침이어서 '청년들이 정 착해 살기 좋은 무주 실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. /무주=전문선 기자

진안군 홍삼빌, '펫 프랜들리 호텔' 로 새출발

진안군 명품 숙박시설 '홍삼빌'이 4 개월간의 새 단장을 마치고 지난 24일 재개장했다.

특히 반려동물과 함께 머물 수 있는 '펫 프랜들리(Pet-Friendly)' 호텔로 탈 바꿈해 1,200만 반려인 시대에 맞춘

지역 관광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. 진안군 자산인 홍삼빌의 새 위탁 운 영자는 국내 바이오 · 헬스케어 전문 기업 HLB그룹의 계열시인 에이치엘비 에프앤비(주)(이하 HLB F&B)다. HLB F&B는 지난 5월 진안군이 시행한 공 모에서 최종 선정된 이후, 지역 상생 과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4억 원을 투 자했다. 노후 된 시설을 최신 트랜드 로 개선하고 기존 근무자를 100% 고 용 승계하며 민관협력의 성공적인 상 생 모델을 완성했다.

새롭게 단장한 홍삼빌은 반려동물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객실을 각 층마다 마련해 펫 프랜들리 콘셉트를 본격적 으로 도입했다.

이는 향후 반려인 유치와 체류형 관 광 활성화의 거점 역할로서도 기대되 고 있다.

또한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특화 공간도 조성했다.

1층 로비에는 업무와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'진안형 워케이션 센터'를 조 성해 새로운 관광 수요에 대응했다. 호텔 야외 공간에는 마이산의 수려한 풍광을 즐길 수 있는 '핀란드식 사우 나 를 마련해 워케이션 이용자와 투숙 객 모두에게 특별한 힐링 경험을 선사 할 예정이다.

/진안=우태만기자

장수군, 탄신 451주년 기념 의암주논개 제례 봉행

장수군은 지난 23일 논개시당 영정 -각에서 '탄신 451주년 기념 의압주논 개 제례 봉행'을 엄숙히 거행했다고

이번 제례는 나라를 위해 한 몸 바 친 논개의 숭고한 애국충절 정신을 기 리고, 그 뜻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마 련된 행사로, 초헌관에는 최훈식 장수 군수, 이헌관에는 최한주 장수군의회 의장, 종헌관에는 추영곤 장수교육지 원청 교육장이 참여했다.

이날 제례에는 해주최씨와 주씨 종 친회를 비롯해 (사)의암주논개정신선 양회 회원, 지역 기관단체 관계자, 주 민 등 50여 명이 함께 자리했으며, 엄 숙하 부위기 속에서 제례가 봉행됐다

제례식은 초헌례(축관 독축)를 시작 으로 아헌례, 종헌례, 사신례, 분축례 수으로 지행되었으며 마지만으로 제 례 참여자들이 음복례를 통해 논개의 뜻을 기리고 충절의 의미를 되새겼다. 의암 주논개는 1574년 장수군 장계면



장수군은 지난 23일 논개사당 영정각에서 '탄신 451주년 기념 의암주논개 제례 봉행' 을 엄숙히 거행했다.

대곡리 주촌마을에서 태어나, 임진왜 란 당시 남편 최경회 현감의 전사 이 후 왜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하여 순국한 충절의 여인이다. 그녀의 희생 정신은 오늘날까지 한국 여성의 대표 적 애국정신으로 널리 존경받고 있다.

장수군은 매년 의암 주논개의 탄신 일에 맞춰 제례를 봉행하며, 애국충절 의 의미를 되새기고 군민과 함께 역사 적 자긍심을 나누는 자리를 이어오고

/장수=고판호기자

의암주논개 탄신 제451주년 기념 '장수군민의 날 기념식ㆍ체육대회'성료

장수군은 지난 23일 장수종합경기장 에서 개최된 의압주논개 탄신 제451주 년 기념 제58회 장수군민의 날 기념 식·제57회 장수군민 체육대회를 성공 리에 마무리했다.

장수군민의 날 기념식과 장수군민 체육대회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역사 인물인 의암 주논개의 정신을 되새기 기 위해 주논개 탄신일인 음력 9월 3 일에 맞춰 해마다 개최된다.

이날 행사는 최훈식 군수를 비롯해 최한주 장수군의회 의장과 의원, 관내 기관·사회단체장, 지역주민, 선수단 등 1,000여 명이 참석하여 그 의미를

기념식은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△선 수단 입장식 △국민의례 △군민헌장 낭독 Δ 시상(군정발전유공자 표창, 장 수군 명예군민증 수여, 장수군민의 장) △기념사 및 축사 △논개상 추대 자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.

수상자는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 발전에 앞장서 온 정연길(이티바 이오텍 대표), 이수민(NH농협 장수군 출장소장) 씨에 대한 군정발전유공 시



상이 이뤄졌으며 김준오 NH농협 전 장수군지부장은 장수군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았다. 또한 제43회 장수군민의 장 수상자인 무화체육장 오재영(남・ 77세), 산업공익장 이정관(남・64세), 애향장 이종순(남・67세), 효열장 한 병원(남・73세) 씨에 대한 시상도 함 께 진행됐다.

기념식에 이어 체육대회에서는 읍면 선수단이 참여하는 족구, 축구, 게이트 볼 등 다양한 종목 경기가 펼쳐져 주 민 간 친목과 단합을 다졌으며, 또한 풍성한 경품 추첨과 노래자랑, 초청가 수 김덕건, 이창휘 축하공연 등 다양 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군민 모두가 함 께 즐기는 화합의 장이 마련되었다.

/장수=고판호 기자

무주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 '공동체 한마당' 성황리 개최

무주군민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 '2025 공동체 한마당'이 지난 23일 무 주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(무주군 적상 면 서창로 89)에서 성황리에 열렸다. 이번 행사는 마을주민과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 동안의 활동 성 과를 공유하고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,

어우러진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. 행사는 식전공연으로 시작해 다양한 동아리팀이 무대에 오른 축하공연이 이어졌으며,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마 을대항 고무신 던지기 대회는 큰 호응 속에 펼쳐졌다.

공연ㆍ체험ㆍ전시ㆍ마을대항 경기가

행사장 곳곳에는 전시작품과 공예체 험 등 어린이 가족 시니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험부스가 운영됐으며 완료지구센터 프로그램 참여 교육생 들의 작품전시도 함께 선보였다.

/무주=전문선 기자

무주군가족센터, 어울림 화합 한마당 행사 성료

무주군가족센터 '2025 어울림 화합 한마당 행사 가 지난 25일 무주예체문 화관에서 개최됐다.

이날 행사는 다양한 세대와 가족 구 성원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나눔의 장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마 련된 것으로, 무주군가족문화센터 이 용객 등 주민 5백여 명이 참석했다.

행사는 가야금연주팀(신나래, 신아름 빛나래)과 태권도시범단 공연을 시작 으로 기념식,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화합 운동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Δ 무주군보건의료원(의료지원), Δ 무 주청소년수련관(어묵 나눔), △무주여 성단체협의회(음료 나눔), △세계 음 식 나눔(캄보디아 롯차), △원광어린 이집(홍보 및 공예), △공동 육아 나 눔터(아나바다 장터) △포토존 등 7개



부스가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기념식에서는 김성미 씨(무주읍 67 세)가 양육 친화적 사회를 조성한 공 로로 무주군 진 씨(무주읍 49세)는 다문화 가정의 교육 활동을 뒷받침해 무주군의회 의 장상을, 유소정 씨(설천면, 47세)는 화 목한 가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가족센터 센터장상을 수상했다.

/무주=전문선 기자

리그 붐 무주군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 열려

2025 리그 붐 무주군 유소년 축구 페 스티벌이 지난 26일 무주읍 등나무운 동장에서 개최됐다.

이날 행사는 (사)팀차붐이 주최하고 풋웍크리에이션이 주관했으며 전북특 별자치도와 무주군, 넥슨, AIA생명, 코 카콜라, 아디다스가 후원했다.

개회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차범 근 이사장,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, 송재호 회장을 비롯해 무주와 고흥,

서울, 순천, 광주 지역 유소년팀 선수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.

오후 3시까지 진행된 경기에서는 150 명의 선수들이 24개 팀으로 나뉘어 학 년별로 5대5 리그전을 펼쳤다.

군은 등나무운동장에 에어바운스를 설치해 호응을 얻었으며 자원봉사자 와 구급요원 등을 배치한 종합상황실 을 운영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했다.

/무주=전문선 기자

지역 **소 식 통**

진안군 마을축제 30일 '축제와 만나장' 개최

진안군과 진안군마을축제조직 위원회가 주최 • 주관하고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문화 행사인 '축제와 만나장'이 오는 30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진 안 만남쉼터에서 개최된다.

'축제와 만나장'은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열리는 축제로 플 리마켓, 문화 공연, 체험 프로그 램을 더해 세대와 지역을 아우 르는 복합문화축제이다.

이번 행사는 진안 관내에서 활 동하는 25개 팀의 셀러가 참여 하고, 5개의 체험 부스와 게임 존, 캠핑존 등 즐길 거리 가득한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.

특히 마을축제에 참여하는 모 든 마을이 퍼레이드를 진행하며 공동체의 연대감과 화합의 의미 를 더할 예정이다.

또한 △정천둥구나무합창단과 청소년수련관 학생들이 참여하 는 지역 공연, △문화체육관광 부가 주최하고 청년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문화가 있는 날 청춘 마이크 공연도 함께 열려, 젊은 감성과 활력을 더한 무대가 준 비될 예정이다. 이날 음악, 퍼포 먼스 등 장르를 넘나드는 공연 이 축제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 릴 것으로 기대된다.

/진안=우태만기자

진안군,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률 96% 넘어

진안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 차 지급신청 마감이 1주일여 앞 으로 다가오면서 막바지 신청 독려에 나섰다.

지난 9월 22일부터 시작된 이 번 사업은 10월 24일 기준 96% 이상 지급률을 보이고 있으며, 군은 아직 쿠폰을 받지 못한 군 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 비스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.

특히 1차 소비쿠폰 지급 당시 큰 호응을 얻었던 '찾아가는 신 청 서비스'를 한층 강화해, 고령 자나 거동이 불편한 군민 등 신 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.

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상위소득 10%를 제외한 군민을 대상으로 지역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 다. 신청은 카드사 온라인 홈페 이지나 읍 • 면 행정복지센터 방 무을 통해 할 수 있으며, 10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쿠폰 을 발급받을 수 없다.

또하 소비 쿠폰은 연 매출 30 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만 사용할 수 있으며,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이 가능 하다. 사용 기한은 1차와 2차 모 두 11월 30일까지로, 기한 내 미 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.

/진안=우태만기자

장수소방서, 마을 이장단 대상 소방안전교육 추진

장수소방서(서장 한동규)는 농 기계 사용이 급증하는 가을 수 확철(10월~11월)을 맞아 농기 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 해를 줄이기 위해 마을 이장단 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장수소방서는 농기계 사고 위 험이 높은 시기에 맞춰 11월 21 일까지, 관할 읍 • 면 이장단 정 례회의 시에 맞춰 교육을 진행

주요 교육 내용은 △경운기, 트랙터 등의 전복・추락・끼임 사고사례 전파 △음주 운전 금 지, 동승 금지 등 농기계 사용 안전수칙 교육 △긴급 상황을 대비한 심폐소생술(CPR), AED 사용법 등 기본 응급처치 교육 /장수=고판호 기자 이다.